

교도소 수형자들의 범죄유형 별 PAI 프로파일*

이 선 민¹⁾ 박 은 영^{1)†} 홍 상 황²⁾ 이 수 정³⁾

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¹⁾ 진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²⁾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³⁾

이 연구에서는 수형자들의 범죄유형에 따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재소자 6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정용 성격평가 질문지(PAI-PS)를 4개 범죄유형으로 구분하여 ANOVA 일원변량분석과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범죄유형 별 심리 및 정서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임상척도에서 SOM, SOM-H, MAN, MAN-A, BOR, BOR-S, ANT, ANT-A, ALC에서 범죄 유형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치료 및 대인관계척도에서는 AGG, AGG-A, AGG-P, NON, DOM 에서 범죄유형 간 차이가 나타났다. PAI-PS 척도와 하위척도 점수에 따라 수형자들이 어떻게 구분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군집 1은 '정서 및 사고 불안정 집단', 군집 2는 '우울 및 스트레스호소 집단', 군집 3은 '심리 및 정서적 문제를 호소하지 않는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이 연구는 범죄유형에 따라 PAI-PS 프로파일 특징을 도출하고, PAI-PS의 척도와 하위척도 점수를 군집분석 함으로써 교정시설 수형자들의 심리정서적 특징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교정체계의 수형자들에게 적합한 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주요어 : 수형자, 범죄유형, 심리 및 정서적 특성, PAI-PS

* 이 논문은 2019년도 한국법심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으며, 한국판 교정용 PAI의 표준화(교정용 성격평가질문지, PAI-PS; 이수정 등, 2019 출판예정)를 위한 연구 목적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 박은영, 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경북 경산시 하양읍 13-13

Tel : 053-850-3240 / E-mail : eyp0202@cu.ac.kr

살인, 강도, 절도, 폭력, 성폭력 5대 범죄 사건들이 각종 대중매체를 통해 기사화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범죄자의 처벌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고 나아가 이슈화 되었던 범죄자의 석방, 석방 시 전자발찌 여부, 재범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걱정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출소자 3년 이내 재복역률(법무부 교정본부, 2018)을 살펴보면, 2017년 1년 이내 재복역률은 7.8%, 2년 이내 재복역률 18.4%, 3년 이내 재복역률 24.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재복역율의 증가는 교정시설에서의 교정 및 교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사회복귀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반영하며, 재복역했을 경우 좌절감과 상실감으로 인한 교정 시설 내에서 부적응적인 행동들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민정희, 2009). 이들이 보이는 부적응 양상은 정신장애를 진단하는 하나의 기준으로도 적용이 되므로(Link & Steuve, 1995) 교정시설에서의 심리, 정서적 특성을 평가하여 그에 따른 개입과 교정 및 교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양한 종교 활동, 교육 및 직업훈련,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을 통해 범죄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여 교정의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이수정, 2002). 출신배경과 생활습관, 욕구와 성격이 다양한 범죄인들을 대상으로 제한된 교정시설 안에서 교정의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수형자를 적절히 분류하는 것이 교정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효과적이며(윤옥경, 2011), 수형자들의 심리 및 정서적 특성과 범죄가 연관이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은 이를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된다. 실제로 성격평가질문지(김영환 등, 2001; Morey, 1991)를 범

죄자에게 적용한 국내외 연구들을 살펴보면 반사회적 성격을 갖거나(Witkin et al., 1976) 망상 등의 심리적 특성을 가진 수형자들이 강간이나 성폭행과 같은 폭력적인 범죄와 살인 등의 강력범죄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Litwack & Schlesinger, 1987). White(1996)는 다양한 범죄유형을 대상으로 PAI를 실시한 결과, 범죄유형 간의 구체적인 특징이 PAI 결과에 반영된다고 하였다. 폭력 관련 범죄자의 경우, PAI 척도에서 AGG(공격성), ANT(반사회적 특징)가 가장 상승하고, PAR(망상), SCZ(조현병), BOR(경계선적 특징) 및 DOM(지배성)도 높게 상승하며, 신체, 정신적 학대 경험에 있는 범죄자의 경우에는 NIM(부정적 인상), BOR(경계선적 특징)이 상승하였다. 또한 정신병질적인 범죄자를 분류해내는데 ANT(반사회적 특징)가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Edens, Hart, Johnson, & Olver, 2000). 박은영, 홍상환 등(2002)의 연구에 따르면, DRG(약물문제), ANT(반사회적 특징), MAN(조증), SCZ(조현병), RXR(치료거부), BOR(경계선적 특징), STR(스트레스) 등 7개 척도는 정상 성인과 수형자 집단을 변별하는데 유용하였고, 고제원(2013)은 PAI를 통해 소년범죄자들의 심리 정서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RXR(치료거부)와 WRM(온정성)이 가장 높이 상승하였고 SCZ(조현병)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는 특성을 보고한 바 있다. PAI와 유사한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는 MMPI를 적용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수형자들의 경우 반사회성, 내외향성, 건강염려증, 편집증, 히스테리, 강박증, 정신증, 우울증, 경조증이 70T 이상의 범위에서 나타났고 이는 일반 범위의 2.5%를 벗어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수형자 집단 내에서 나타나는 그들의 다양한 심리, 정서적 상태들을

검작해 볼 수 있게 한다. 또한 범죄유형에 따라 MMPI의 상승한 척도를 비교해 본 결과, 반사회성, 편집증, 강박증, 정신증, 경조증 척도에서 현저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특히, 반사회성의 경우 다른 범죄유형보다 강도, 강간, 폭력, 성범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수정, 이윤호, 서진환, 2000). 이러한 수형자들의 심리, 정서적 특성과 범죄간 관련성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표본을 대상으로 범죄유형에 따른 수형자들의 심리, 정서적 특성을 비교하거나 탐색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수형자들의 다양한 심리 및 정서적 특성을 고려하여 분류 처우 및 개입을 한다면 그들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경험할 수 있는 정신건강문제 뿐만 아니라, 자살 등의 극단적인 결과 또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Shapiro, 1999). 이처럼 체계적인 수형자의 분류를 기반으로 한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치료와 재활의 필요성 인식 및 평가 도구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심영희, 윤성근, 임희철, 김치곤, 1992; 이수정, 서진환, 이윤호, 2000). 객관적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심리 및 정서적 특성을 살펴 심각한 심리 및 정서적 문제를 나타내는 수형자 혹은 잦은 재범이나 공격적 행동과 관련된 특성이 잠재되어 있는 수형자 등을 선별하고 분류함으로써 그들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교정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양형의 결정이나 가석방 심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수형자들의 분류를 위해 임상 장면뿐만 아니라 법정 및 교정을 포함하여 다양한 영역과 장면에서 임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성격평가질문지(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Morey, 1991)를 통해 수형자의 성격 특성과 정신건강문제를 판단하고 있다(Morey, 1991; Hare, 1991; 김영환 등, 2001). PAI는 모호 문항이나 중복 문항이 없기 때문에 각 척도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구성개념을 직접적으로 다룸으로서 문항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무선반응, 부주의, 과잉반응, 과소반응 등의 반응양식에 대한 정보들도 제공한다. 반응양식에 대한 정보들은 피병을 부리거나 의도적으로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 법정 장면 등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유용하다(Rogers, 1997; Resnick, 1997; Rogers, Ustad, & Salekin, 1998). 또한 주요 정신병리의 평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기존의 성격검사와 달리 대인관계 문제, 공격성, 스트레스, 알코올 문제, 약물문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척도들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반사회적 성격장애나 알코올 등 약물문제와 높은 관련성을 보이는 수형자들을 평가하기에 적합하다(Groom, 1999; Meloy & Gacono, 1995).

외국의 경우, 여러 교정기관의 수형자들로 부터 수집된 데이터들을 수집하여 표준화한 PAI-CS(Edens, & Ruinz, 2005)를 사용하고 있다. PAI-CS는 교정 장면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도구이며 임상심리학과 교정직원들이 효과적으로 범죄자를 관리하고 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이는 원판 PAI의 척도에 3가지 타당도 척도(INF-F, INF-B, ICN-C)와 1개의 보충지표(ACS)가 추가되었으며 교정 표본을 대상으로 T점수를 산출하여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기에 적합하다. PAI-CS는 범죄자의 관리 및 처우와 관련된 세 가지 주요 목표를 다루기 위해 개념화되고 작성되었다. 첫째, 교정시설 내에서 수형자들이 행할 가능성이

있는 제도적 위법 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확인하고 둘째, 제도적 위법 행위자의 심리 사회적 특성과 심리 정서적 특성들을 기술하고 셋째, 수형자들의 교정 시설 내 구금과 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을 예측하는 것이다 (Andrews & Bonta, 2003; Ashford et al., 2001).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교정 수용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 교정용 PAI의 표준화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교정용 성격평가질문지, PAI-PS; 이수정 등, 2019 출판예정). 홍정운, 이수정, 홍상환(2019)의 연구에서 이 자료를 이용하여 문제행동에 대한 내현화 및 외현화 2요인 모형이 국내 교정 수용자에게도 적용가능한 지를 검증한 결과 내현화 및 외현화의 2요인 모형이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도 한국판 교정용 PAI 표준화를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교정용 증보판을 사용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강력 범죄로 흔히 함께 분류되는 살인 및 살인미수, 폭력사범 및 성폭력사범의 심리 정서적 특성을 대조하고, 또한 수형자들 중 사기 및 횡령범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하여 이들의 세부적인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총 4가지 범죄 유형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범죄유형에 따른 심리, 정서적 특성을 이해하고, 군집의 특징을 파악하여 각 수용자

개별특성에 적합한 재범 방지, 교정, 교화, 치료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수형자와 일반인 간의 성격특성을 비교분석하거나 MMPI를 활용하여 수형자들의 범죄유형 별 심리, 정서적 특성을 분석해왔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교정시설의 수용자들의 심리, 정서적 특성뿐만 아니라 치료단계에서 고려해야할 다양한 요소까지 평가할 수 있는 PAI-PS를 이용하여 이들의 범죄유형 별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교정 개입과 프로그램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방법

연구 참가자

이 연구는 교정용 PAI 표준화를 위해 우리나라 5개 지역(대구, 대전, 안양, 영월, 청주)의 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형자 859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진주교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로부터 승인을 받고 진행된 연구에서 표집된 것이다 (CUEIRB2018-2). 이 연구는 진주교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로부터 승인 받은 자료를 사용하였고 이에 따른 심의면제에 대한 IRB

표 1. 수집된 수형자 관련 구체적 정보

| 구분 | 세부내용 |
|-------------------|-----------------------------------------------------------------------------|
| 사회인구학적 특성 | 이름, 성별, 나이, 학력, 결혼상태 |
| 범죄 관련 정보 | 수감 중인 교도소, 재범유무, 복역횟수, 범죄명, 대인범죄유무, 흉기사용유무, 약물복용유무, 최초범죄연령, 최초범죄명, 범죄유형중복유무 |
| 정신 및 신체 질환에 대한 정보 | 정신질환유무, 정신질환진단명, 정신약물치료유무, 신체질환유무, 신체질환진단명, 신체질환약물치료유무 |

를 승인받아 진행되었다(CUIRB-2019-E004). 자료 수집 과정에서 교도소에 수감 중인 859 명의 수형자들과 교도관들을 대상으로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비밀보장, 참여 중 철회에 대한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수형자에게 PAI 증보판(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기본적인 정보를 작성할 수 있는 별도의 용지를 배부하였다. 교도관들에게 개별 수형자들의 인적사항과 현재 복역 범죄내용, 전과전력, 현재의 상태를 묻는 기록용지를 배부하고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2018년 4월에서 9월까지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교정용 PAI(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for Prison Setting)를 개발하였다. 수집된 수형자들의 정보는 표 1과 같으며, 수집된 자료들 중 이 연구의 목적에 필요한 정보들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에서 타당도에 문제가 있는 자료를 제외하고자 홍상환, 박은영, 김영환(2001)의 연구에서 제안한 무선반응과 인상판리의 탐지 기준에 해당하는 비일관성(ICN) 또는 저빈도(INF)의 원 점수가 10점 이상이고, Morey(2007)가 권장한 긍정적 인상(PIM) 68T 이상, 부정적 인상(NIM) 92T 이상이며 결측치를 포함한 대상자의 자료를 제외하고 살인 및 살인미수범, 사기 및 횡령범, 성폭력범, 폭력범 4 유형으로 구분하여 총 604명(남 526명, 여 78명)의 수형자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43.19세($SD=13.37$)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구체적인 인구통계학적 특징은 표 2와 같다. 그리고 이들의 범죄 관련 정보는 표 3과 같다. 초범은 316명(52.3%), 재범은 288명(47.7%)이었다. 첫 범죄 발생 연령의 중앙값은 28.50($SD=11.58$)이었다. 이들이 현재

표 2. 수형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 | 교도소 수형자 | | |
|--------------|------------------|------------------|------------------|
| | 남 | 여 | 전체 |
| N(%) | 526 (87.1) | 78 (12.9) | 604 (100.0) |
| 평균연령(SD) | 42.80 (13.50) | 45.81 (12.16) | 43.19 (13.37) |
| 학력(%) | | | |
| 중졸 | 61 (11.6) | 7 (9.0) | 68 (11.3) |
| 고졸 | 67 (12.7) | 2 (2.6) | 69 (11.4) |
| 고졸 | 191 (36.3) | 27 (34.6) | 218 (36.1) |
| 대중퇴 | 45 (8.6) | 4 (5.1) | 49 (8.1) |
| 대졸 | 79 (15.0) | 26 (33.3) | 105 (17.4) |
| 대학원 졸업 | 5 (1.0) | 2 (2.6) | 7 (1.2) |
| 기타 | 78 (14.8) | 10 (12.8) | 88 (14.6) |
| 결혼 상태(%) | | | |
| 미혼 | 212 (40.3) | 13 (16.7) | 225 (41.3) |
| 기혼 | 123 (23.4) | 23 (29.5) | 146 (24.2) |
| 이혼 | 109 (20.7) | 19 (24.4) | 128 (23.5) |
| 재혼 | 4 (0.8) | - | 4 (0.7) |
| 사별 | 15 (2.9) | 10 (12.8) | 25 (4.6) |
| 동거(사실혼) | 15 (2.9) | 2 (2.6) | 17 (2.8) |

표 3. 수형자의 범죄관련 특징

| | 교도소 수형자 | | |
|-----------------------|------------------|-----------------|------------------|
| | 남 | 여 | 전체 |
| 최초 범죄 연령(<i>SD</i>) | 26.50 (11.65) | 36.50 (7.54) | 28.50 (11.58) |
| 재범 유무(%) | | | |
| 초범 | 250 (47.5) | 66 (84.6) | 316 (52.3) |
| 재범 | 276 (52.5) | 12 (15.4) | 288 (47.7) |
| 범죄유형(%) | | | |
| 살인 및 살인 미수 | 161 (30.6) | 19 (24.4) | 180 (29.8) |
| 사기 및 횡령 | 166 (31.6) | 50 (64.1) | 216 (35.8) |
| 성폭력 | 107 (20.3) | 3 (3.8) | 110 (18.2) |
| 폭력 | 92 (17.5) | 6 (7.7) | 98 (16.2) |

교정 시설에 복역하게 된 범죄명은 사기 및 횡령이 216명(35.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살인 및 살인미수 180명(29.8%), 성폭력 110명(18.2%), 폭력 98명(16.2%) 순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교정용 PAI(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for Prison Setting)

PAI-PS는 Edens와 Ruiz(2005)가 교정시설 내 수형자들의 임상적 평가를 위하여 개발한 표준화된 성격 검사인 PAI-CS의 내용에 따라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형자들을 대상으

로 표준화된 성격검사이다(이수정 등, 2019 출판예정). 총 344문항으로 구성된 자기 보고형 검사지로서 7개의 타당도 척도, 11개의 임상 척도, 5개의 치료고려척도, 2개의 대인관계척도를 포함하여 모두 25개의 서로 다른 영역을 평가하는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반응 양식은 4지 선다형으로 구성하여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중간이다”, “매우 그렇다”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있고 0점, 1점, 2점, 3점으로 채점한다. PAI-PS에는 기존의 PAI에 없던 몇 가지 척도와 보충지표가 추가되었다. 교정표본의 성격을 고려하여 추가한 척도로 3개의 타당도 척도(ICN-C, INF-F, INF-B)와 1개의 보충지표(ACS)가 있다. 타당도 척도에서 추가된 비밀관성 교정지표(ICN-C)는 타당성의 질적 분석을 위한 척도로 불법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 두 문항의 일관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저반도-전반부(INF-F)와 저반도-후반부(INF-B)는 문항의 위치에 따른 무선반응을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척도이다. 그리고 보충지표인 중독특성척도(ACS)는 중독 행동과 관련이 있는 성격 및 정서적 특성을 측정하여 범죄자 중 약물 또는 알코올 사용 장애가 있거나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감별해내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정서적 불안정(BOR-A), 자기손상(BOR-S), 자기중심성(ANT-E) 하위척도 원점수의 합으로 계산한다. PAI-PS의 ICN, ICN-C, INF, INF-F, INF-B를 제외한 20개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58(RXR)-.89(DEP)였으며, 하위척도 31개의 내적 합치도는 .32(AGG-V)-.85(DEP-A)로 나타났다(이수정 등, 2019 출판예정).

분석방법

교정시설에 수감된 수형자의 범죄유형 별 PAI-PS 프로파일 특성을 살펴보고, 수형자들의 동질적인 군집을 알아보기 위해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수형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범죄 관련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ANOVA 일원변량분석을 통해 범죄 유형 간 PAI-PS 척도 및 하위척도의 T점수 차이를 알아보고, 유의한 결과에 대하여 사후검증(Scheffe)을 실시하였다. 셋째, PAI-PS 척도 및 하위척도의 T점수에 따라 어떠한 동질적인 군집이 형성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2단계 군집분석 방법을 사용하였고, 이는 Wards의 위계적 군집분석 방법과 비위계적 군집분석인 K-평균분석을 연달아 실시하는 것이다. 첫 단계에서는 Wards방법을 이용해 군집화 일정표의 계수 변화와 덴드로그램을 통해 군집의 수를 정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군집별 군집변인들의 평균 점수를 초기 중심점(seed point)으로 순차적 군집분석방법을 통해 최종 군집을 확정하게 된다. 이 방법은 대부분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탈된 정도가 큰 사례들이 군집 형성에 미치는 영향의 문제를 줄임으로써 위계적 군집분석만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군집분석 후 성별, 범죄유형, 재범유무, 정신질환유무 변인들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군집 간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결 과

범죄유형에 따른 PAI-PS 척도와 하위척도 프로파일 특성 분석

범죄유형 별 PAI-PS 척도 및 하위척도 프로파일 양상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범죄유형 별 일부 척도 및 하위척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자료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유의수준과 부분에타제곱(η^2)의 값을 함께 고려하여 어떤 범죄유형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가에 대한 사후 분석 결과를 살펴보았다(표 4 참조). 부분에타제곱(η^2)값의 경우 .01 수준일 때 집단간 차이효과가 작고, .06 수준일 때 중간이며, .14 이상일 때 크다고 판단한다(Kittler, Menard, & Phillips, 2007).

임상척도 프로파일 특성 분석

신체적 호소(SOM), $F(3, 600)=4.69, p<.001, \eta^2=.030$, 건강염려(SOM-H), $F(3, 600)=7.535, p<.001, \eta^2=.036$, 조증(MAN), $F(3, 600)=8.094, p<.001, \eta^2=.039$, 활동수준(MAN-A), $F(3, 600)=8.68, p<.001, \eta^2=.042$, 경계선적특징(BOR), $F(3, 600)=6.193, p<.001, \eta^2=.030$, 자기 손상(BOR-S), $F(3, 600)=7.701, p<.001, \eta^2=.037$, 반 사회적 특징(ANT), $F(3, 600)=6.301, p<.001, \eta^2=.031$, 반사회적 행동(ANT-A), $F(3, 600)=9.419, p<.001, \eta^2=.045$, 알코올문제(ALC), $F(3, 600)=10.649, p<.001, \eta^2=.051$, 에서 작은 크기와 중간 크기 사이의 차이효과를 나타내는 유의미한 집단차가 발견되었다. 어떤 범죄유형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신체적 호소(SOM)에서 살인 및 살

표 4. 범죄유형 별 PAI-PS 척도 및 하위척도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및 F값

| 변인 | 살인 및 살인미수 | 사기 및 횡령 | 성폭력 | 폭력 | F | η^2 | Scheffé |
|----------------------|----------------|----------------|----------------|----------------|----------|----------|----------|
| 신체적 호소(SOM) | 52.5 (11.5) | 48.2 (8.1) | 49.6 (9.1) | 50.3 (10.9) | 6.16*** | .030 | a>b |
| 전환 (SOM-C) | 51.2 (11.1) | 48.7 (8.0) | 49.5 (9.3) | 50.3 (10.2) | 2.283 | .011 | |
| 신체화 (SOM-S) | 52.4 (11.0) | 48.7 (9.2) | 49.9 (10.0) | 50.8 (9.8) | 4.519** | .022 | a>b |
| 건강염려 (SOM-H) | 52.8 (11.7) | 48.1 (7.3) | 49.4 (9.1) | 49.5 (12.0) | 7.535*** | .036 | a>b, a>c |
| 불안(ANX) | 49.0 (9.3) | 49.5 (9.7) | 50.5 (10.1) | 51.9 (9.8) | 2.15 | .011 | |
| 인지적 불안 (ANX-C) | 48.3 (8.8) | 50.1 (10.0) | 50.4 (9.9) | 52.1 (9.7) | 3.420* | .017 | a<d |
| 정서적 불안 (ANX-A) | 49.6 (9.3) | 49.0 (10.3) | 51.0 (9.7) | 51.4 (9.9) | 1.785 | .009 | |
| 신체 생리적 불안 (ANX-P) | 49.5 (9.2) | 49.5 (9.3) | 50.1 (10.5) | 51.5 (9.9) | 1.095 | .005 | |
| 불안관련장애(ARD) | 50.5 (8.7) | 49.3 (9.8) | 50.4 (10.2) | 50.6 (11.7) | .622 | .003 | |
| 강박장애 (ARD-O) | 48.5 (9.1) | 51.6 (10.7) | 49.8 (8.1) | 49.3 (10.5) | 3.571* | .018 | a<b |
| 공포증 (ARD-P) | 49.3 (9.6) | 48.7 (9.2) | 50.6 (10.8) | 51.9 (10.2) | 2.775* | .014 | |
| 외상적 스트레스 (ARD-T) | 52.5 (8.7) | 48.4 (9.3) | 50.4 (10.8) | 50.1 (11.4) | 5.817*** | .028 | a>b |
| 우울(DEP) | 50.5 (10.9) | 48.9 (8.9) | 49.9 (10.5) | 51.3 (9.3) | 1.569 | .008 | |
| 인지적 우울 (DEP-C) | 49.5 (9.9) | 49.1 (9.2) | 50.6 (10.4) | 51.9 (9.2) | 2.065 | .010 | |
| 정서적 우울 (DEP-A) | 50.1 (10.0) | 48.9 (9.1) | 50.3 (10.6) | 50.9 (9.0) | 1.263 | .006 | |
| 신체 생리적 우울 (DEP-P) | 51.6 (11.3) | 49.2 (9.2) | 48.8 (9.9) | 50.6 (10.0) | 2.574 | .013 | |

표 4. 범죄유형 별 PAI-PS 척도 및 하위척도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및 F값 (계속 1)

| 변인 | 살인 및 살인미수 | 사기 및 횡령 | 성폭력 | 폭력 | F | η^2 | Scheffe |
|---------------------|----------------|---------------|----------------|----------------|----------|----------|------------------|
| 조증(MAN) | 46.9 (8.6) | 51.5 (9.7) | 49.6 (9.4) | 48.6 (9.7) | 8.094*** | .039 | a<b |
| 활동수준 (MAN-A) | 47.1 (9.2) | 51.9 (9.8) | 49.2 (9.8) | 48.4 (9.6) | 8.689*** | .042 | a<b, b>d |
| 과대성 (MAN-C) | 48.1 (9.1) | 51.7 (9.8) | 49.1 (10.3) | 47.9 (9.4) | 5.952*** | .029 | a<b, b>d |
| 초조성 (MAN-I) | 47.7 (9.1) | 49.5 (9.1) | 50.7 (9.0) | 50.7 (10.0) | 3.244* | .016 | |
| 망상(PAR) | 49.2 (9.8) | 49.9 (9.2) | 50.4 (9.7) | 50.9 (10.3) | .694 | .003 | |
| 과경계 (PAR-H) | 49.2 (9.8) | 50.1 (9.2) | 51.1 (10.8) | 51.0 (9.3) | 1.168 | .006 | |
| 피해망상 (PAR-P) | 49.8 (8.7) | 49.2 (8.7) | 49.5 (8.8) | 50.8 (12.3) | .676 | .003 | |
| 원한 (PAR-R) | 49.2 (9.5) | 50.2 (9.4) | 50.2 (10.1) | 50.2 (10.1) | .438 | .002 | |
| 조현병(SCZ) | 49.4 (9.8) | 49.4 (8.6) | 50.0 (9.8) | 51.3 (10.2) | 1.056 | .005 | |
| 정신병적 경험 (SCZ-P) | 48.0 (8.9) | 50.2 (9.0) | 48.8 (8.8) | 50.5 (10.7) | 2.400 | .012 | |
| 사회적 위축 (SCZ-S) | 51.0 (9.7) | 48.8 (8.5) | 50.3 (11.2) | 52.0 (11.2) | 2.988* | .015 | |
| 사고장애 (SCZ-T) | 49.2 (10.0) | 49.8 (9.6) | 50.5 (9.3) | 50.4 (9.2) | .565 | .003 | |
| 경계선적 특징(BOR) | 48.0 (9.5) | 49.2 (8.7) | 51.3 (9.3) | 52.5 (10.0) | 6.193*** | .030 | a<c, a<d. b<d |
| 정서적 불안정성 (BOR-A) | 49.5 (9.7) | 48.6 (9.0) | 50.8 (9.9) | 52.3 (10.3) | 3.837** | .010 | b<d |
| 정체감 문제 (BOR-I) | 48.2 (9.3) | 49.2 (9.2) | 52.1 (9.8) | 50.6 (10.1) | 4.400** | .022 | a<c |
| 부정적 관계 (BOR-N) | 48.2 (9.1) | 50.1 (9.0) | 50.8 (9.5) | 53.0 (10.0) | 5.824*** | .028 | a<d |
| 자기손상 (BOR-S) | 47.3 (9.5) | 49.6 (9.1) | 50.6 (8.5) | 52.6 (9.6) | 7.701*** | .037 | a<c |

표 4. 범죄유형 별 PAI-PS 척도 및 하위척도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및 F값 (계속 2)

| 변인 | 살인 및 살인미수 | 사기 및 횡령 | 성폭력 | 폭력 | F | η^2 | Scheffe |
|--------------------|----------------|---------------|----------------|----------------|-----------|----------|-----------------------|
| 반사회적 특징(ANT) | 47.7 (8.7) | 48.8 (9.7) | 50.3 (8.4) | 52.4 (7.9) | 6.381*** | .031 | a<d, b<d |
| 반사회적 행동 (ANT-A) | 48.5 (9.1) | 48.5 (9.8) | 50.2 (8.5) | 54.0 (8.9) | 9.419*** | .045 | a<d, b<d, c<d |
| 자기중심성 (ANT-E) | 48.1 (8.5) | 49.7 (9.9) | 50.0 (9.2) | 50.6 (9.2) | 2.041 | .010 | |
| 자극추구 (ANT-S) | 47.9 (8.9) | 49.0 (9.2) | 50.5 (8.7) | 50.5 (8.9) | 2.894* | .014 | |
| 알코올 문제(ALC) | 49.0 (10.0) | 46.3 (7.5) | 50.1 (9.8) | 52.3 (10.6) | 10.647*** | .051 | a>b, b<c, b<d |
| 약물문제(DRG) | 49.8 (9.0) | 48.2 (7.9) | 47.6 (8.5) | 50.8 (10.7) | 3.339* | .016 | |
| 공격성(AGG) | 49.3 (9.4) | 47.2 (8.7) | 50.1 (9.2) | 53.6 (10.3) | 10.647*** | .051 | a<d, b<d |
| 공격적 태도 (AGG-A) | 49.5 (9.9) | 47.5 (8.8) | 49.9 (9.2) | 52.9 (10.1) | 7.413*** | .038 | a<d, b<d |
| 언어적 공격 (AGG-V) | 48.7 (9.2) | 48.6 (9.6) | 49.1 (10.2) | 52.1 (9.9) | 3.307* | .020 | b<d |
| 신체적 공격 (AGG-P) | 49.9 (8.7) | 47.3 (8.8) | 51.0 (9.4) | 53.7 (11.2) | 11.444*** | .053 | a>b, a<d, b<c, b<d |
| 자살관념(SUI) | 49.8 (10.1) | 48.6 (8.3) | 49.7 (8.9) | 50.0 (10.3) | 8.22 | .004 | |
| 스트레스(STR) | 49.1 (9.9) | 50.0 (9.7) | 51.2 (9.3) | 51.6 (9.9) | 1.904 | .009 | |
| 비지지(NON) | 51.1 (9.8) | 47.6 (8.1) | 51.5 (9.7) | 52.7 (12.2) | 8.278*** | .040 | a>b, b<c, b<d |
| 치료거부(RXR) | 50.5 (8.6) | 50.0 (9.9) | 49.6 (9.6) | 49.6 (10.5) | .247 | .001 | |
| 지배성(DOM) | 48.7 (9.4) | 52.7 (9.8) | 47.4 (9.9) | 48.8 (9.7) | 9.631*** | .046 | a<b, b>c, b>d |
| 온정성(WRM) | 49.6 (10.1) | 51.4 (8.7) | 48.8 (10.8) | 49.2 (10.2) | 2.361 | .012 | |

* $p<.05$, ** $p<.01$, *** $p<.001$ ()는 표준편차

a=살인 및 살인미수사범, b=사기 및 횡령사범, c=성폭력사범, d=폭력사범

인미수범($M = 52.5, SD = 11.5$)이 사기 및 횡령범($M = 48.2, SD = 8.1$)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하위척도인 건강염려(SOM-H)에서는 살인 및 살인미수범($M = 52.8, SD = 11.7$)이 사기 및 횡령범($M = 48.1, SD = 7.3$)과 성폭력범($M = 49.4, SD = 9.1$)범 보다 높은 척도 상승을 나타냈다. 반면 조증(MAN)에서는 살인 및 살인미수범($M = 46.9, SD = 8.6$)이 사기 및 횡령범($M = 51.5, SD = 9.7$)과 비교하여 낮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활동수준(MAN-A)에서 사기 및 횡령범($M = 51.9, SD = 9.8$)이 살인 및 살인미수범($M = 47.1, SD = 9.2$)보다 높이 상승했다. 경계선적 특징(BOR)에서는 폭력범($M = 52.5, SD = 10.0$)이 살인 및 살인미수범($M = 48.0, SD = 9.5$)과 사기 및 횡령범($M = 49.2, SD = 8.7$)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또한 성폭력범($M = 51.3, SD = 9.3$)은 살인 및 살인미수범($M = 48.0, SD = 9.5$)보다 높은 척도의 점수를 나타냈다. 하위척도인 자기 손상(BOR-S)에서 역시 성폭력범($M = 50.6, SD = 8.5$)이 살인 및 살인미수범($M = 47.3, SD = 9.5$) 보다 높게 상승했다. 또한 반사회적 특징(ANT)에서 폭력범($M = 52.4, SD = 7.9$)이 살인 및 살인미수범($M = 47.7, SD = 8.7$)과 사기 및 횡령범($M = 48.8, SD = 9.7$)과 비교하여 척도의 점수가 높았으며 하위척도인 반사회적 행동(ANT-A)에서는 폭력범($M = 54.0, SD = 8.8$)이 살인 및 살인미수범($M = 48.5, SD = 9.1$), 사기 및 횡령범($M = 48.5, SD = 9.8$), 성폭력범($M = 54.0, SD = 8.9$) 등 모든 범죄유형 집단 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알코올(ALC)의 경우 사기 및 횡령범($M = 46.3, SD = 7.5$)이 살인 및 살인미수범($M = 49.0, SD = 10.0$), 성폭력범($M = 50.1, SD = 9.8$), 폭력범

($M = 52.3, SD = 10.6$) 등 모든 범죄유형 집단과 비교하여 낮은 상승을 보였다.

치료 및 대인관계척도 프로파일 분석

공격성(AGG), $F(3, 600)=10.647, p<.001, \eta^2=.051$, 공격적 태도(AGG-A), $F(3, 600)=7.413, p<.001, \eta^2=.038$, 신체적 공격(AGG-P), $F(3, 600)=11.444, p<.001, \eta^2=.053$, 비지지(NON), $F(3, 600)=8.278, p<.001, \eta^2=.040$, 지배성(DOM), $F(3, 600)=9.631, p<.001, \eta^2=.046$ 에서 작은 크기와 중간크기 사이의 유의미한 차이 효과를 나타냈으며 어떤 범죄 유형 사이에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났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사후분석을 실시했다.

사후분석 결과 치료척도의 경우, 공격성(AGG)에서 폭력범($M = 53.6, SD = 10.3$)이 살인 및 살인미수범($M = 49.3, SD = 9.4$)과 사기 및 횡령범($M = 47.2, SD = 8.7$)에 비해 높은 상승을 보였으며 공격적 태도(AGG-A)에서 또한 폭력범($M=52.9, SD=10.1$)이 살인 및 살인미수범($M = 49.5, SD = 9.9$), 사기 및 횡령범($M = 47.5, SD = 8.8$) 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신체적 공격(AGG-P)에서는 살인 및 살인미수범($M = 49.9, SD = 8.7$)이 사기 및 횡령범($M = 47.3, SD = 8.8$)과 비교하여 척도가 높이 상승했으며, 폭력범($M = 53.7, SD = 11.2$)과 비교하였을 경우에는 살인 및 살인미수범($M = 49.9, SD = 8.7$)과 사기 및 횡령범($M = 47.3, SD = 8.8$)이 상대적으로 낮은 척도 점수를 보였다.

대인관계척도의 경우, 비지지(NON)에서 사기 및 횡령범은 살인 및 살인미수범과 성폭력범 보다 낮은 척도 점수를 보였으나 폭력범과 비교했을 때는 높은 척도 상승을 나타냈다.

표 5. 군집 별 특성

| 군집변인 | 군집1 정서 및 사고 불안정 집단 (n=80) | 군집2 위축, 고립으로 인한 우울 집단 (n=253) | 군집3 심리적 문제 비호소 집단 (n=271) |
|------------|------------------------------------|----------------------------------------|------------------------------------|
| 성별 | | | |
| 남성 | 72명 (90%) | 211명(83.4%) | 243명(89.7%) |
| 여성 | 8명 (10%) | 42명(16.6%) | 28명(10.3%) |
| 평균연령 | 41.05세 (SD=14.5) | 43.52세 (SD=13.7) | 43.51세 (SD=12.6) |
| 범죄유형 | | | |
| 살인 및 살인미수 | 27명(33.8%) | 63명(24.9%) | 90명(33.2%) |
| 사기 및 횡령 | 19명(23.8%) | 92명(36.4%) | 105명(38.7%) |
| 성폭력 | 15명(18.8%) | 49명(19.4%) | 46명(17.0%) |
| 폭력 | 19명(23.8%) | 49명(19.4%) | 30명(11.1%) |
| 초범 및 재범 | | | |
| 초범 | 34명(42.5%) | 123명(48.6%) | 159명(58.7%) |
| 재범 | 46명(57.5%) | 130명(51.4%) | 112명(41.3%) |
| 정신질환 보고 유무 | | | |
| 유 | 9명(11.3%) | 7명(2.8%) | 5명(1.8%) |
| 무 | 45명(55.0%) | 157명(62.1%) | 178명(65.7%) |

마지막으로 지배성(DOM)척도에서 사기 및 횡령범(M = 47.6, SD = 8.1)이 살인 및 살인미수범(M = 51.1, SD = 9.8), 성폭력범(M = 51.5, SD = 9.7), 폭력범(M = 52.7, SD = 12.2) 등 모든 범죄유형에 비해 척도의 점수가 높았다.

PAI-PS 척도와 하위척도의 군집분석

PAI-PS의 군집을 도출하기 위해 PAI-PS의 척도와 하위척도 점수를 군집변인으로 하여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Ward 방법

을 적용해 군집화 일정표의 계수 변화를 살펴 보고 군집 계수의 비율이 현저하게 변화하는 지점을 확인하고 이어서 군집별 군집변인들의 평균점수를 초기 중심점(seedpoint)으로 설정하는 K-Means 분석을 통해 군집의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장 양호한 3개의 군집을 선택하였다(표 4, 그림 1, 2).

3개 군집의 특성을 확인하고 군집명을 부여하기 위해 3개 군집의 최종 군집 중심점의 군집별 표준화 점수를 이용하였다. 군집 1은 불안관련장애(T=66.15), 외상적스트레스(T=64.66), 불안(T=64.91), 조현병(T=65.98),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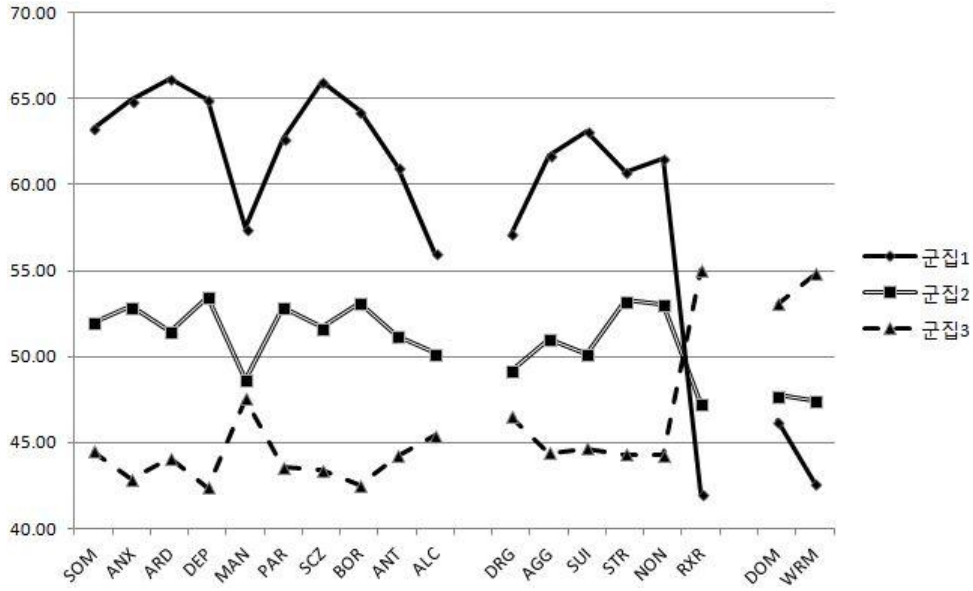


그림 1. 군집 별 평균 프로파일: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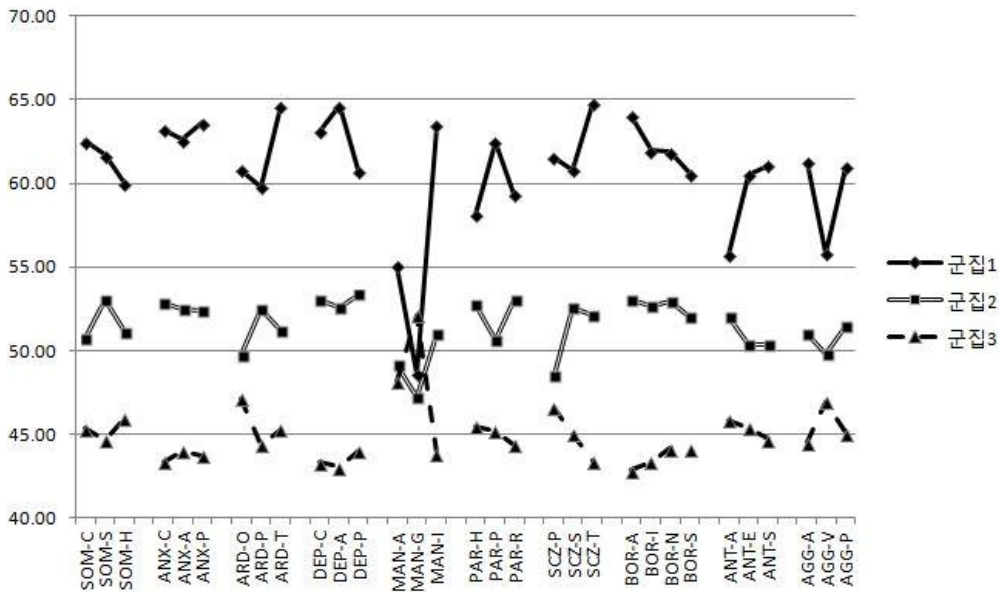


그림 2. 군집 별 평균 프로파일: 하위 척도

고장애($T=64.80$), 정서적 우울($T=64.63$)가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되어 있고, 과대성($T=48.62$)은 평균범위였다. 이 군집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사고 과정에서 장애를 지적하는 것이어서 군집 1은 ‘정서 및 사고 불안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이 군집에 포함된 범죄유형으로는 살인 및 살인미수범이 27명(33.8%)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이 집단의 평균연령은 41.05세($SD=14.5$)이었으며 남성이 72명(90%), 여성이 8명(10%)로 나타났다. 재범과 정신질환의 유무를 살펴보았을 때 초범 34명(42.5%), 재범 46명(57.5%)이었고 정신질환이 있다고 보고한 사람은 9명(11.3%), 없다고 보고한 사람은 45명(55%)이었다.

군집 2는 우울($T=53.50$), 신체생리적 우울($T=53.36$), 인지적 우울($T=53.05$), 스트레스($T=53.27$), 경계선적 특징($T=53.13$), 비지지($T=53.02$)가 T점수 53점 정도로 높고 조증($T=46.08$)과 과대성 하위척도($T=47.21$)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척도 점수의 형태는 대인관계에서의 우울과 스트레스 호소 및 낮은 활동수준 또는 정서적 냉담함을 시사하는 심리적, 정서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대인관계 문제로 인한 우울 및 스트레스 호소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이 집단은 사기 및 횡령범이 92명(36.4%)으로 가장 많았고, 평균 연령은 43.52세($SD=13.7$)로 나타났다. 성별의 비율은 남성 211명(83.4%), 여성 42명(16.6%)으로 나타났다. 이 집단의 경우 초범은 123명(48.6%) 재범은 130명(51.4%)이었으며 정신질환이 있다고 보고한 사람은 7명(2.8%), 없다고 보고한 사람은 157명(62.1%)이었다.

군집 3의 경우 치료거부($T=55.01$), 온정성($T=54.82$), 과대성($T=52.15$)에서 경도의 상

승을 보였으며 우울($T=42.37$), 경계선적특징($T=42.49$)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심리 및 정서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특성을 나타낸다. 이에 따라 군집 3은 ‘심리 및 정서적 문제를 호소하지 않는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사기 및 횡령범이 105명(38.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평균 연령은 43.51세($SD=12.6$)로 나타났다. 성별의 비율은 남성 243명(89.7%), 여성 28명(10.3%)였으며 초범이 159명(58.7%), 재범이 112명(41.3%)로 초범이 재범에 비해 많은 수를 보였다. 정신질환이 있다고 보고한 사람은 5명(1.8%)으로 세 군집 중 가장 적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정신질환이 없다고 보고한 사람은 178명(65.7%)이었다.

논 의

이 연구는 교정시설 내 수형자들의 범죄유형 별 PAI-PS 프로파일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수형자들의 심리, 정서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들이 실시한 교정용 PAI 척도와 하위척도에 대한 일원변량분석 및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수형자들의 PAI-PS 척도와 하위척도의 T점수에 따라 어떠한 군집이 형성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범죄유형 별 프로파일 특성

살인 및 살인미수사범, 사기 및 횡령범, 성폭력범, 폭력범에 따라 PAI-PS 척도 및 하위척도의 T점수를 비교분석한 결과, 특정 척도들에서 범죄유형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각 범죄 유형 간에는 유의미하게 다른 심리 및 정서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유의미한 차이가 어떤 범죄유형 간에서 나타났는가를 사후분석 한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신체적 호소(SOM)와 하위척도 건강염려(SOM-H)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범이 사기 및 횡령범 보다 척도가 높게 상승했으며 건강염려(SOM-H)에서는 살인 및 살인미수범이 성폭력범보다 척도가 높게 상승하였다. MMPI 검사 결과 정상집단에 비해 살인범 집단이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고 신체적 증상을 이용하려 할 수 있으며 피상적이고 반사회적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가 있다(강은영 등, 2008). 정상인과 살인범을 비교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이 연구와 일부 차이가 있으나, 정상인과의 비교에서도 살인범들의 신체적 증상 호소가 유의미하게 높았고 이 연구결과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범이 사기 및 횡령범과 성폭력범에 비해 신체적 호소 및 관련 하위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다른 선행 연구들에서는 살인, 폭력, 강도 등의 강력범은 사기 및 횡령범과 같은 비폭력 통계집단 보다 계획이나 규범을 준수하지 않으려는 성향을 나타내고(정유희, 안창일, 2004), 높은 신체적 호소 증상, 우울, 불안, 자살관념, 공격성(서진환, 이수정, 2000)을 보였다. 반면 사기 및 횡령, 절도 등의 재산범은 강력범 등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계획, 규범에 순응하고 자기 관리를 충실히 하는 성향이 높았다(정유희, 안창일, 2004). 이 연구 결과에서 살인 및 살인 미수범은 사기 및 횡령범에 비해 높은 신체적 호소와 건강염려의 특징을 나타내어 선행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

하였다. 살인 등 강력범과 사기 및 횡령범 두 범죄유형 간 상반되는 심리, 정서적 특성에 대한 연구 결과들에 더불어, 이 연구에서는 조중(MAN), 활동 수준(MAN-A)에서 사기 및 횡령범이 살인 및 살인 미수범보다 높은 상승을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살인, 강도, 폭력 등의 강력범들과 사기 및 횡령 등 재산범들은 계획이나 규범에 대한 충실성, 자기 관리, 신체적 호소 등에서 상반된 특징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이동훈 등, 2019). 이 연구의 결과에서 재산범에 속하는 사기 및 횡령범이 살인 및 살인미수, 성폭력, 폭력 등 강력범들 보다 비지지(NON)가 낮게 나타난 반면 지배성(DOM)에서는 사기 및 횡령범이 다른 범죄유형 보다 높은 상승을 보여 두 범죄유형 간 상반된 특성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경계선적 특징(BOR), 반사회적 특징(ANT), 반사회적 행동(ANT-A), 공격성(AGG), 공격적 태도(AGG-A), 신체적 공격성(AGG-P)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폭력범이 살인 및 살인미수범, 사기 및 횡령범과 비교하여 유의미한 척도 상승을 나타냈다. 이는 White(1996)의 선행연구에서 폭력 관련 범죄자의 경우에 PAI 척도 중 공격성(AGG), 반사회적 특징(ANT)가 가장 상승하고, 경계선적 특징(BOR) 및 지배성(DOM), 망상(PAR), 조현병(SCZ)가 함께 높게 상승하며, 신체, 정신 학대를 경험한 범죄자의 경우 경계선적 특징(BOR), 부정적 인상(NIM)이 상승한다는 결과와 부합한다. 또한 서진환 등(2000)의 연구에서 범행의 내용에 따라 MMPI 하위척도 평균 표준점수를 비교한 결과, 폭력, 강도 및 강간범이 다른 범죄유형보다 반사회성 척도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바 있다. 선행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살펴본다면 반사회

적이고 공격적인 특성이 다수의 폭력범들이 가지는 특성이라 생각해볼 수 있으나 이 연구 결과에서 성폭력범과 폭력범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범죄유형 간 반사회적, 공격적 특성에 차이가 있다는 해석에는 주의가 요구된다.

경계선적 특징(BOR), 자기 손상(BOR-S)에서 성폭력범이 살인 및 살인미수범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PAI에서 경계선적 특징(BOR)과 자기 손상(BOR-S)의 상승은 대인관계에서 불만을 경험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 하며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려는 특성을 반영한다. 실제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MMPI-2 프로파일에서 6(pa), 4(pd)가 상승하여, 이를 성범죄자의 대인관계문제와 충동성, 공격성 등 반사회적 특성을 설명한 선행연구의 결과가 있다(정지숙 등, 2009). 이 선행연구의 결과는 PAI에서 경계선적 특징(BOR), 자기 손상(BOR-S) 상승의 결과와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살인 및 살인미수범과의 비교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이 다른 모든 범죄유형 보다 성폭력범이 가지는 주된 특성이라고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알코올 문제(ALC)에서 사기 및 횡령범은 살인 및 살인미수범, 성폭력범, 폭력범 등 모든 범죄유형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였다. 고명숙 등 (2002)의 연구에서 범죄유형 별 음주 기여율을 비교한 결과 먼저, 음주가 자신의 범행에 기여한 정도를 주관적으로 측정한 결과 특가범사범이 52.3%로 가장 높았고 폭력범 역시 40.9%가 음주가 범죄 행위에 관련이 있다고 응답했다. 사기범의 경우 20.7%로 가장 낮은 주관적 음주 관련성을 보고했다. 또한 음주 정도 및 문제음주 측정도구 AUDIT(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선별검사를 사용하여 객관적인 측정을 한 결과에서도 특가범사범이 16.07점으로 가장 높았고 사기범은 10.16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선행 연구 결과와 이 연구 결과를 미루어 보았을 때 사기 및 횡령범이 다른 범죄 유형에 비해 알코올 문제를 상대적으로 적게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조심스럽게 해석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결과들을 바탕으로 각 범죄유형 별 프로파일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살인 및 살인미수범은 사기 및 횡령범에 비해 신체적 호소(SOM)에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고, 건강염려(SOM-H)에서는 성폭력범 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앞서 논의된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따라서 살인 등 강력범은 사기, 횡령 등 재산범에 비해 신체적인 증상을 호소하고 이러한 증상을 이용하려 하는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겠다.

사기 및 횡령범은 살인 및 살인미수범 보다 조증(MAN), 활동 수준(MAN-A)에서 높게 상승했으며, 지배성(DOM)에서는 모든 범죄유형들에 비해 척도의 점수가 높았다. 조증(MAN), 활동 수준(MAN-A)에서 차이는 사기 및 횡령범과 살인 및 살인미수범 사이에 상반되는 특성으로 볼 수 있으며, 지배성(DOM)에서는 사기 및 횡령범이 살인 및 살인미수, 성폭력범, 폭력범 등 이 연구에서 모든 범죄 유형에 비해 높았기 때문에 사기 및 횡령범에게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특성이라 설명할 수 있겠다.

폭력범의 경우 살인 및 살인미수, 사기 및 횡령범에 비해 반사회적 특징(ANT), 공격성(AGG) 등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상승을 보였다. 이 연구에서는 두 범죄유형 간에서만 차

이가 나타났으나 폭력범이 반사회적이고 공격적 특성을 나타낸다는 선행연구결과들을 살펴 보았을 때 이러한 특성은 폭력범에게서 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범의 경우 살인 및 살인 미수범에 비해 경계선적 특징(BOR), 자기 손상(BOR-S)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MMPI-2를 통한 성범죄자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성범죄자의 대인관계문제, 충동성 등 반사회적 특성이 나타난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성폭력범이 모든 범죄유형과 비교하여 대인관계문제를 보이는가에 대해서는 이 연구에서는 알 수 없다는 것이 제한적이나, 선행연구 결과와 함께 미루어본다면, 성폭력범들이 대인관계에 불만을 경험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할 수 있겠다. 또한 성폭력범은 사기 및 횡령범에 비해 알코올문제(ALC), 신체적 공격(AGG-P), 비지지(NON)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성폭력범이 강력범에 속하는 살인 및 살인미수범이나 폭력범과는 프로파일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사기 및 횡령범과는 다소 상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용자 군집 별 특성

PAI-PS 척도 및 하위척도 T점수를 기준으로 동질적인 군집을 살펴보았다.

군집 1은 불안관련장애(ARD), 외상적스트레스(ARD-T), 불안(ANX), 조현병(SCZ), 사고장애(SCZ-T), 정서적 우울(DEP-A)가 높게, 과대성(MAN-G)이 낮게 상승하는 프로파일이 지적되어 ‘정서 및 사고 불안정 집단’으로 명명했다. 즉 군집 1에 속하는 수형자들은 높은 불안과

우울 수준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고 장애의 유무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범죄유형 별 PAI 척도 및 하위 척도를 비교 분석하였을 때 살인 및 살인 미수범의 외상적 스트레스(ARD-T)가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작은 수준과 중간 수준 사이의 차이 효과로 상대적으로 높이 상승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군집 1의 외상적 스트레스(ARD-T)의 상승은 살인 및 살인 미수범의 가장 높은 비율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군집 1의 경우 다른 PAI척도들의 높은 상승에 비해 치료거부(RXR)가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것으로 보아 호소하고 있는 정서 및 사고의 불안정한 심리적 문제에 치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치료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겠다.

군집 2는 우울(DEP), 신체-생리적우울(DEP-P), 인지적우울(DEP-C), 스트레스(STR), 경계선적특징(BOR), 비지지(NON)가 높은 반면 조증(MAN), 과대성(MAN-G)에서 낮은 점수를 보여 ‘대인관계문제로 인한 우울 및 스트레스 호소 집단’으로 명명했다. 이러한 척도 양상을 살펴 보면, 이 집단은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있고 고립감 및 우울감을 느끼고 그에 대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경계선적 특징(BOR)의 상승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군집 2의 수형자들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확대당한 경험이 있는 범죄자들이 속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White, 1996). 또한 기분장애는 범죄와의 연관성이 낮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이수정, 2015)와는 상반되었으나 폭력성 수준이 낮으며 우울한 심리 및 정서적 특성과 범죄와의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났다고 보고된 연구(Tardiff & Sweillam, 1980)와는 일치했다. 군집 2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16.6%로 군집 중 가장

많았다.

군집 3은 치료거부(RXR), 온정성(WRM), 지배성(DOM)가 높고 상승한 반면 우울(DEP), 경계선적 특징(BOR)은 낮은 상승을 나타냈으며 이 군집의 수형자들은 다른 군집의 수형자들에 비해 심리 및 정서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군집 1, 2와는 달리 치료거부(RXR)가 상승하여 상반된 특징을 나타냈다. 이러한 특성들에 따라 ‘심리 및 정서적 문제를 호소하지 않는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3은 초범자의 비율이 159명(58.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집단은 정신질환이 없다고 보고한 수형자의 비율이 178명(65.7%)으로 높았다. 군집1,2와 달리 군집 3은 재범자보다 초범자의 비율이 높았고 높은 초범자의 비율로 인하여 심리, 정서적 문제의 호소나 관련 특성들이 다른 군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을 가능성을 추론해볼 수 있겠다.

이상에서 4개의 범죄유형 간 PAI-PS 척도와 하위척도에서의 차이 및 군집분석을 통하여 심리 정서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수용자들의 심리 정서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특성이 반영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 PAI-PS이다. PAI-PS로 범죄를 포함하는 법정 장면에서의 임상적 평가를 한다면, 이들에 대한 보다 정확한 평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수형자들을 교정, 교화하는데 고려해야 할 다양한 문제들을 파악하여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수형자 집단 내에서 범죄유형 간 PAI-PS 척도 및 하위척도의 프로파일 특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수형자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심리 및 정서적 특성들을 도출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수형자 분류 및 치료과정에서 기초 자

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수형자들의 PAI-PS 척도 및 하위 척도의 T점수를 기준으로 자연발생적으로 묶여지는 군집을 확인함으로써 범죄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동질적인 심리 및 정서적 특성을 보이는 수형자 집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수형자들에게서 공통적인 심리 및 정서적 특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집단에 따라 다른 처우 및 치료의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의의에도 이 연구의 결과는 범죄유형 간의 대조에 근거한 것이고, 일반인 표본과는 비교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로 나타난 범죄유형 별 특성을 해당 범죄유형만이 가지는 특성으로 일반화시켜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차이효과가 나타난 집단 간의 차이로 주의하여 해석해야 하며, 사후 연구에서는 하나의 범죄유형과 다른 모든 범죄유형 간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심리, 정서적 특성을 발견하여 범죄유형 마다의 주된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이 연구는 살인 및 살인미수, 사기 및 횡령, 성폭력, 폭력과 같이 강력범죄를 중심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여 수용시설 내 다양한 범죄자들에게 적용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마약범 또는 풍속, 경제사범, 교통사범 등 다양한 범죄유형을 가지고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은영 (2008). 살인범죄의 실태와 유형별 특성.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2, 545.

- 고제원 (2013). PAI프로파일 상에 나타난 소년 범죄자의 특성. 한국법학회, 50, 329-349.
- 김영환, 김지혜, 오상우, 임영란, 홍상황 (2001). PAI 표준화 연구: 신뢰도와 타당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2), 311-329.
- 민정희, 강혜자 (2009). 교도소 수형자의 심리적 요인과 시설 내 적응태도. 교정연구, 45, 253-277.
- 박은영, 홍상황, 이전아, 김영환 (2001). 물질남용집단의 PAI프로파일 유형과 물질사용척도의 진단기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4), 711-730.
- 박은영, 홍상황, 정상문, 김영환 (2002). 수형자의 PAI 프로파일과 범법행위 예언지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941-954.
- 법무부 (2018). 2018 교정본부 통계자료. 법무부.
- 서진환, 이수정 (2000). 교정기관 재소자들의 정신건강문제. 한국사회복지학, 43, 131-158.
- 심영희, 윤성근, 임희철, 김치곤 (1990). 재소자의 생활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7-353.
- 이동훈, 양모현, 권은비, 오대연 (2019). 범죄 유형 및 수감기간에 따른 남성 출소자의 MMPI-2 반응 특성 비교. 한국재활심리학회, 26(2), 19-35.
- 이수정, 서진환, 이윤호 (2000). MMPI 점수로 본 교도소 수형자들의 정신건강 문제 실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9, 43-62.
- 이수정 (2002). 재소자의 분류를 위한 심리평가의 효용성. 소년보호, 16(1), 한국소년정책학회, 215-251.
- 이수정 (2015). 최신범죄심리학(3판). 정신장애 범죄자를 위한 긍정심리기반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서울: 학지사.
- 이수정, 박은영, 권해수, 김영환, 김지혜, 박중규, 조은경, 오상우, 이은호, 황순택, 홍상황. (2019 출판예정). 교정용 성격평가질문지(PAI-PS) 전문가용 실시요강. 서울: 학지사.
- 윤옥경 (2011). 교도소 수형자의 규율위반 행동에 대한 분석: 피해 경험과 절차적 공정성의 효과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2(3), 391-424.
- 정유희, 안창일 (2004). 성별, 재범여부, 범죄유형에 따른 수형자의 NEO-PI-R 반응.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3), 725-740.
- 정지숙, 조성희, 최지명 (2009). 정신감정이 의뢰된 성범죄자들의 MMPI-2 하위 유형에 따른 심리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8(4), 1049-1068.
- 홍정윤, 홍상황, 이수정 (2019). PAI 내현화 및 외현화 2요인 모형 검증 연구: 성인 교도소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법, 10(1), 29-45.
- Andrews, D., & Bonta, J. (2003). The psychology of criminal conduct (3rd ed.). Cincinnati, OH: Anderson.
- Ashford, J. B., Sales, B. D., & Reid, W. H. (Eds.). (2001). Treating adult and juvenile offenders with special need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Clear, Todd R. & Cole Geroge. (2000). FAmerican, Correction,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Deggenbacher, J. L., Oetting, E. R & DiGiuseppe, R. A. (2002). Principle of empirically supported interventions applied to anger

- management. *The Counselling Psychologist*, 30, 262-280.
- Dolan, M, & Fullam, R. (2005). Factors influencing treatment entry in sex offenders against children. *Medecine, Science, and the Law*, 45, 303-310.
- Edens, J. F., Hart, S. D., Johnson, D. W., Johnson, J. K., & Olver, M. E. (2000). Use of the personalirt Assessment Inventory to assess psychopathy in offender populations. *Psychological Assessment*, 12, 132-139.
- Edens, J. F., Ruiz, M. A. (2005). PAI Interpretive Report for Correctional Settings.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Groom, B. (1999). Handling the triple whammy: Serious mental illness, substance abuse and criminal behavior. *Corrections Today*, 61, p.114-119.
- Hare, R. D. (1991). The Hare Psycopathy Check-list Revised. Toronto: Multi-Health systems.
- Hollin, C. R. (2004). *the essential Handbook of Offender Assesment and Threatmen*. John Wiley & Sons Ltd.
- Lester, D. (1995). Serial Killer: The Insatiable Passion. Philadephia: *The Charles Press*, Publishers.
- Litwack, T. R. & Schlesinger, L.B. (1987). Assessing and predicting Violence: Re-search, Law, and Applications. in Weiner, I. B & Hess, A. K. (eds). *Handbook of Forensic Psychology*. NY: John Wiley & Sons.
- Link, B. & steuve, A. "Evidence Bearing on Mental Illness as a Possible Cause of Violent Behavior." *Epidemiology Reviews*. 17. p172~181.
- Morey, L. C. (1995). The personality and crime: Where do we stand. *Psychology 2, Crime & Law*, 2(3), p.141-152.
- Meloy J. R., & Gacono, C. (1995). Assessing the psychopathic personality. In J. Butcher(Ed.), *Clinical personality Assessment*. New York: Oxford.
- Rogers, R, Ustad, K. L & Salekin, R. T. "Convergent validity of the Personality Assesment Inventory: A study of emergency referrals in a correctionalsetting." *Assessment*, 5, p.3-12, 1998.
- Resnick, R. (1997). Malingered psycosis. In R. Rogers (ES.), *Clinical assesment of malingering and deception*. (2nd ed., p.47-67), New York: Guilford.
- Rogers, R. (1997). *Clinical assessment of malingering and depression* (2n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Rubin, D, B., & Stocking, M. (1976). Criminality in XYY and XXY Men. *Science*, 193, p547
- Simons, Cassandra L. (2001).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in Serial Killers: The Thrill of the kill", *The Justice Professional*, 14(4), 345-356.
- White, L. J. (1996). Review or the Personality Assesment Inventory(PAI): A new psychological test for clinical and forensic assesment. *Australian Psychologist*, 31, 38-39.
- 1 차원고접수 : 2019. 06. 03.
심사통과접수 : 2019. 10. 10.
최종원고접수 : 2019. 10. 28.

PAI Profile of Criminal types among prison inmates

Seon Min Lee¹⁾ Eun Young Park¹⁾ Sang Hwang Hong²⁾ Soo Jung Lee³⁾

¹⁾Department of Psychology Daegu Catholic University

²⁾Department of Education Chinju National University

³⁾Department of Criminal Psychology Kyonggi University

In this study, 604 inmates in correctional facilities were classified into four types of crime in order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crime patterns, and the character-assessment questionnaire (PAI-PS) they conducted was analyzed through ANOVA One-Way Analysis and Cluster Analysis to examine their psychological and emotional characteristics.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the types of crime in the SOM, SOM-H, MAN, MAN-A, BOR, BOR-S, ANT, ANT-A, and ALC scales on clinical scales, and AGG and AGG-A on treatment and interpersonal scales. AGG-P, NON, and DOM scales showed differences between crime types. The results of a cluster analysis to find out how inmates are distinguished according to scores on the PAI-PS scale and the sub-scale showed that Cluster 1 was divided into 'Sentence and Accident Instability Group', Cluster 2 was 'Dpression and Stress-Host Group' and Cluster 3 was 'Groups that do not complain of psychological and emotional problem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information for individual understanding of water types in calibration facilities by identifying PAI-PS profil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crime types and analyzing clusters according to scores of PAI-PS scales and sub-scale, which could provide basic data for each type of treatment program suitable for each type of water type in the calibration system.

Key words : inmate group, types of crim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characteristics, PAI-PS